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에 '평택시의 섬' 표지석 세웠다

신안군, 경기도 평택시와 자매결연협약체결 1주년 기념 제막식 '슈퍼오닝 쌀' 쌀눈 모양 본떠 표지석 제작되어 지역 정체성 부각

신안군은 10월 17일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자매결연협약 체결 및 평택시의 섬 가거도 선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정장선 평택시장,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

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표지석은 평택시의 유명한 '슈퍼오닝 쌀'의 쌀눈 모양을 본 떠 제작되어 지역 정체성을 부각하였다.

또한, 여객선을 타고 내리는 관광객들에게 자매도시 평택시를 알리는 데 특목한 역할을 하고, 명실상부 관

광지인 가거도에 또 하나의 포토존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과 평택시는 행정·관광·문화·예술·교육·체육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2019년 11월 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평택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안군의 섬(가거도)을 공유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섬이 없는 자매도시에 신안의 아름다운 섬을 공유해 상호 문화 및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발한 우호교류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14일 김해시의 섬 하의도 선포식을 하는 등 자매도시 간 섬 문화 및 우수시책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바다위의 정원 1004섬 신안군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원 투입...다양한 의견 공유



영광군은 지난 16일 영광군 농업인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홍석봉 부군

수,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회의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찰보리 관련 향토산업 및 융복합산업으로 축적된 인적·물적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찰보리산업 융복합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1부 추진단 회의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시작으로 2부에는 액션그룹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1부 행사에서는 농식품 부로부터 승인된 사업내용과 우리 군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시

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코디네이터와 액션그룹, 행정협의체는 찰보리 관련 관광상품 및 가공제품 개발, 지역활동가 역량강화 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전문가사를 초빙하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신규 액션그룹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가 진행되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우성 농정과정은 "본 사업으로 영광찰보리 산업의 고도화 및 자립적 지역발전 조지체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연기자

영암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영암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10월부터 11월까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기계사고는 177건으로 경북 180건, 경남 179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연중 사고발생 빈도는 4-5월, 10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논·밭·비탈길 운행이 잦아 전복되는 경우 농기계 밑에 깔릴 수 있어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



영암=조대호기자

"목포 항구 포차 개점시간 변경합니다"

동절기 맞아 오후 3시부터 운영

목포시는 동절기를 맞아 목포 항구 포차 개점 시간을 평소보다 앞당겨 오후 3시부터 운영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동절기에 들어서 일몰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이들이 포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점시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그동안 입구에서 일괄 실시해 오던 발열 체크와 방문 기록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포차별로 실

시하는 등 안전한 운영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항구포차 15개 부스에서는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비수기를 보낸 동안 포차별로 인테리어를 강화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가을철 본격 손님맞이 준비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항구포차 근처에는 계절을 물신 느낄 수 있는 불거리도 풍부해 찾는 이들에게 가을밤의 정취를 선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 출입구인 동명동 물량장은 조기 탈기 작업이 한창이라, 남향 출입구 방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군사이클동호회, 함평천지길 활성화 위한 '사이클 홍보'

함평군 사이클동호회(회장 정전천)는 지난 10월 18일 함평천지길 홍보를 위해 사이클 동호회원 60여 명과 '함평천지 꽃길따라 하이킹' 행사를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함평천-엑스포공원~밀원수길에 이르는 관광코스인 함평천지길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이루어진 행사이다.

함평천은 군에서 자체 추진하

는 꽃길조성사업을 통해 매년 함평천 일대를 꽃길로 조성해왔으며, 올해 2020년도에는 팜파스글라스, 호피역새, 수크령, 라인라이트 등 6종 2,150주의 꽃을 식재하여 관리중이다.

엑스포공원은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취소됐으나 상시 개방하여 군민과 도시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엑스포 수변공원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밀원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때죽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불거리와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전천 사이클동호회장은 "전국에 유명한 올레길, 둘레길이 있지만 우리 함평에도 가칭 함평천지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코로나19로 심



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를 홍보하고 싶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